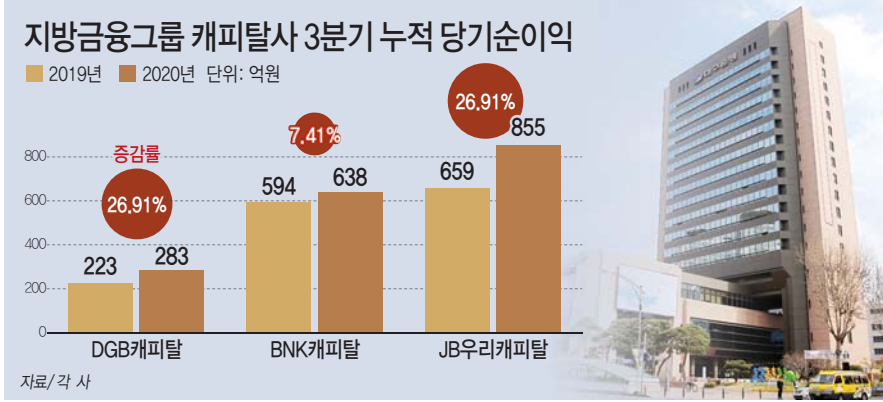


지방금융지주, 효자 ‘캐피탈사’ 덕분에 3분기 실적 선방

3사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776억
JB우리캐피탈 누적 855억
 전년비 29.74% ↑, 순익 42% 증가
DGB캐피탈 누적 283억
 순익 36% 증가, 사업다각화 성과
BNK캐피탈 누적 638억
 7.41% 성장, 수수료·이자수익 ↑



지방금융지주의 올 3분기 양호한 실적에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캐피탈사 역시 호실적에 역할을 보였다. 수년 전부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룬 결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방금

융그룹 계열 캐피탈사 DGB·BNK·JB우리캐피탈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7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476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00억원(20.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비중을 높여온 J

B우리캐피탈과 DGB캐피탈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순이익을 20%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JB우리캐피탈은 3분기까지 누적 8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9.74% 성장하면서, 캐피탈 3사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3분기

순익은 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0%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고수익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금융자산을 낮추면서 동시에 기업금융, 개인신용대출 등을 확대한 점이 순익 확대에 이어졌다”고 밝혔다.

DGB캐피탈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1% 늘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5.53% 증가한 것이다.

DGB캐피탈 역시 수년 전부터 기계금융의 비중을 낮추고,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 3분기만 하더라도 전체 영업자산 중 기계금융이 34.3%로 가장 높았

다. 이후 2018년 3분기 26.6%, 2019년 3분기 23.9%, 2020년 3분기 19.1%로 꾸준히 낮춰왔다. 또한 지난해 3분기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비중은 각각 10.3%, 22.8%였지만, 올 3분기에는 18.5%, 30.6%까지 끌어올렸다.

DGB캐피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해온 사업다각화 효과가 올 3분기에도 나타났다”며 “연체율 또한 1.68%로 전년 동기 대비 0.62% 포인트 낮추면서 수익성에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BNK캐피탈도 역시 자산이 성장하면서 수수료이익과 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누적 6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전년 동기 대비 7.41% 증가한 것이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신한은행-LS일렉트릭 ‘그린뉴딜’ 협약

그린뉴딜 성공적 수행 적극 협력
 “친환경 산업 투자·금융지원 총력”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LS일렉트릭과 ‘그린뉴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진옥동 행장과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LS일렉트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 LS일렉트릭이 추진 중인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의 금융자문주선 및 포괄적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그린뉴딜 관련 LS일렉트릭 협력 기업에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대기업·협력 중소기업·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왼쪽)과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를 비롯한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상호 사업 기회 공유를 통해 양사 사업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LS일렉트릭과의 K-그린뉴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

등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환경사회책임(ESG)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렌드 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해 저탄소 금융 시장 선도 및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스쿨뱅킹 자동납부맨 1만원 캐시백

신한카드, 30일까지 이벤트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2학기 스쿨뱅킹 자동납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쿨뱅킹 자동납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습비 등을 은행 이체가 아닌 카드로 자동결제하는 서비스이다.

행사기간 내 스쿨뱅킹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하고 유지하면 학생 1명당 1만원 캐시백 혜택을 지급한다. 또한 친구에게 스쿨뱅킹을 추천해 신규 신청이 이뤄지면 가입 고객 1명당 추천인에게 SPC 1만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행사 기간 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 고객 전원에게 화상수업 스타트업 ‘수파자’ 30분 무료 체험기회와 25%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응모 고객 중 100명에게 한해 ‘매스피티’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 수학 학습지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8일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석 기자

IBK기업은행 퍼스트랩 2기 모집

IBK기업은행이 ‘IBK 퍼스트랩(1st Lab) 2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IBK 1st Lab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참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은행의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에 융합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테스트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대상의 제한을 없앴다. 기업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기업은 물론 개인, 대학, 연구소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12월 중 약 15개를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IBK 1st Lab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용도 미끼, 소액·고금리 대출 주의”

금감원 Q&A

불법 대부업 피해

Q: 얼마 전 전전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30만원을 대출 받으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접했습니다. 이런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불법 대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면서, 미등록 업체임에도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된 수법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소액·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금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의 팀장과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본인 회사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이며, 첫 거래 상황을 잘하면 두 번째부터는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하

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일주일 후 8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어 A씨는 추가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팀장의 약속을 믿고서,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습니다. A씨는 기한 내 190만원 상환이 어려워지자, 1주일 연장한 후 3주 뒤에 대출금 상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300만원 대출을 요구했으나, 대부업체 팀장은 본사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A씨는 190만원을 대출하고 원리금과 연체에 따른 연장료 등의 명목으로 총 308만원(연리 745%)을 상환한 셈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금전대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시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외의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명석 기자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대응 총력

금감원, 관련 동영상 2편 제작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이 피해를 입기 쉬운 대리입금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대상 고금리 사채 등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묘한 수법 등으로 유사 피해가 반복되고, 청소년들이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교육용 동영상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은 학생들이 생활주변에서 일

어나는 불법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청소년에 친숙한 팬클럽 활동, 온라인 게임 등과 관련된 불법금융 피해상황 설정과 또래 용어 사용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편당 2~3분 내로 짧게 구성했다.

동영상은 금감원 채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게시해 홍보한다. 1사 1교 참여 금융회사 등에도 동영상상을 제공하여 현장 교육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